

1. 소극장 / 낮 / 실내

극장 객석에 배우들이 앉아있다.

앞에는 연출가 종혁이 앉아있다.

종혁 - 연극제가 얼마 안남았으니까 공연 날까지 조금만 더 힘냅시다.

배우들이 “네” 하고 대답한다.

종혁 - 이번 페스티벌에서 우리 목표는 대상입니다. 알겠죠?

배우들 스텝들- 네.

종혁 - 그럼 모두 수고하셨고 막내 지윤이는 남아서 발성 연습좀 더 하고 가고요.

지윤 - 알겠습니다.

배우들이 극장 밖으로 나간다.

2. 소극장 / 낮 / 실내

지윤이 무대 위에서 발성을 하고 있다

아,에. 이 어 우 소리치는 지연과 지윤.

무대 위로 올라온 종혁이 지연 곁으로 간다.

지연의 배를 만지는 종혁.

종혁 - 더 크게 해봐.

지연 - 아 에 이 어 우.

종혁 - 숨을 더 들이마시고.

지연 - 아 에 이 어 우.

종혁 - 그래 그렇게 호흡을 해야지 좋은 발성이 되지.

종혁이 지연의 뺨을 어루만져준다.
엉덩이도 툭툭 치는 종혁.

지연 - 연출님 죄송합니다만 터치는 안 해주시면 안될까요?

종혁 - 뭐?

지연 - 아니 자꾸 제 몸을 터치하시는게 조금 불편해서요.

종혁 - 아. 그래. 알았어.

종혁이 무대로 내려간다.
종혁이 객석에 가서 앉는다.

.3 소극장 / 낮 / 실내

무대 위엔 나무가 심어져 있고 무대 가운데엔 연극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지윤(50) 서 있다.
핀 조명을 받고 있는 지윤.

지윤 - 훨훨 나는 새를 보면 나는 참 부러워.
날개를 다친 나는 날수가 없는데.
훨훨 날아다니며 온 세상을 구경하고 싶은 내 마음을 너는 알까?
나는 오늘도 지쳐서 울기만 하고 있을 뿐인데.
상처뿐인 내 맘은 고향만 가고 있는데.
언제쯤 나는 날 수가 있을까.
너 같이 날아다니면서 나도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까?
비행을 시작하고 싶어.
나도 너처럼 퍼덕이며 온 세상을 날아다니고 싶어.
더 넓은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고 싶어.
마리아, 마리아.

라고 부르면 무대 뒤 문에서 하녀 복을 입은 지연이 지윤 옆으로 다가온다.

지연 - 네 주인님, 부르셨나요, 주인님…….

라고 지연이 대사를 하는데 그때 극장 객석에서 연출가 종혁(40)의 컷 하는 소리가 들린다.

종혁 - 나오지 마.

지연 - 네?

종혁 - 지연이 너 앞으로 나오지 말고 그냥 뒤에서 대답 해.

지연 - 저 80분동안 앞어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 한번인데요?

종혁 - 너 가 앞으로 나오면, 연극의 이야기가 죽어. 그냥 뒤에서 대사해.

지연 - 알겠습니다.

지연이 순간 표정이 굳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

지연이 아무 말이 없이 멍하니 서 있다.

종혁이 주변을 둘러본다.

종혁 -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고 지연이는 잠깐 남고.

지윤과 지연이 무대 뒤로 들어간다.

객석에 있는 배우들이 일어나서 극장 밖으로 나간다.

3. 소극장 / 실내 / 밤

텅 빈 소극장, 지연이 무대 위에 서 있다.

종혁 - 자신있는 독백 한 번 해봐.

지연 - 훨훨 나는 새를 보면 나는 참 부러워.

날개를 다친 나는 날수가 없는데.

훨훨 날아다니며 온 세상을 구경하고 싶은 내 마음을 너는 알까?

나는 오늘도 지쳐서 울기만 하고 있을 뿐인데.

상처뿐인 내 맘은 고풍만 가고 있는데.

언제쯤 나는 날 수가 있을까.

너 같이 날아다니면서 나도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까?

비행을 시작하고 싶어.

나도 너처럼 퍼덕이며 온 세상을 날아다니고 싶어.

더 넓은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고 싶어.

종혁 - 오, 제법 괜찮네.

지연 - 감사합니다

종혁 - 지연이 너 주인공 하고 싶지 않아?

지연 - 네? 주인공이요?

종혁 - 그래 주인공. 내가 지금 젊은 배역으로 주인공을 한명 더 캐스팅 하려고 생각중인데.
지연이 너가 이미지가 맞고 열심히 하는 거 같아서 주인공 한 번 시켜보려고 하는데.

지연 - 아까는 앞에도 나오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종혁 - 그건 니가 터치하지 말라고 그래서 화나서 그런 거고. 주인공 한 번 해볼래?

지연 - 저야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시켜만 주시면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혁 - 그래?

종혁이 무대 위로 올라간다.
무대 위로 올라가서 바지를 벗는 종혁.
셔츠도 벗는 종혁.
지연이 얼음창처럼 몸이 굳는다.
당황하는 지연.

지연 - 뭐 하시는 거예요?

종혁 - 근데 나 너만 보면 내 자지가 끌려. 너 가 여자로 느껴져. 너하고 한 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작품도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 같아. 내 예술적 욕망이 널 원하고 있어.
내가 너 주인공 시켜줄테니까 한번만 하자. 너도 벗어, 벗으라고. 이 무대 위에서
우린 한몸이 되는 거야.

지연 - 이러지 마세요. 대표님.

종혁 - 주인공 하고 싶지 않아? 주인공 시켜줄게. 나 너랑 하 싶어. 내 욕망이 진짜로
널 원해.

지연을 안는 종혁.
지연이 종혁을 뿌리친다.
종혁을 밀치고 극장 문으로 달려가는 지연.

4. 연습실 밖/ 밤 / 실외

연습실 밖 지연이 숨을 계속 쉬고 있다.
너무나 놀란 마음이 진정 되지 않는 지연.
가슴을 툭툭 치는 지연.

5. 지연의 방 / 실내 / 낮

말없이 침대에 기대어 있는 지연.
답답한지 가슴만 짹짹 치는 지연.
지연 너무 놀랐는지 마음이 진정되질 않는다.

6. 집 / 낮 / 실외

침대 위 지연이 앉아있다.
옷을 갈아입은 지연.
지연의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엄마 - 지연아 너 연습 가야지?

지연 - 연습?

엄마 - 그래.

지연 - 엄마 나 연극 안할래?

엄마 - 애가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연극을 왜 안해.
너 훌륭한 배우 되겠다고 엄마랑 약속했잖아
내가 너 배우 만들려고 예고에 예대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안 한다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갔다와.
연극을 해야지 나중에 큰 배우가 되는 거야.

엄마가 문을 닫고 나간다.
지연이 일어난다.
문을 열고 나가는 지연.

7. 소극장 / 낮 / 실외

지연 소극장 계단을 내려간다.
문을 조심스레 들어가는 지연. .

8. 소극장 / 실내 / 낮

지윤이 무대 위에 서 있고 객석에는 종혁이 앉아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무대 쪽으로 걸어간다.
계속 지연을 쳐다보는 종혁.
지연 종혁 근처에 다가서자 종혁에게 꾸벅 인사를 한다.

지연 - 늦어서 죄송합니다.

종혁 - 가, 나가.

지연 종혁의 나가라는 소리에 순간 얼음장처럼 굳어진다.

종혁 - (점점 더 화가 나서) 나가라고.

지연 - 죄송합니다.

종혁 - 듣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너 내가 얘기했잖아.
연습시간 절대 늦지 말라고.

지연 - 죄송합니다!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종혁 - 됐고! 나가.

야, 너 같은 애들은 태도라도 좋아야지. 태도도 안 좋으면 내가 너를 왜 데리고 있어야 되냐?

니 가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있다고. 나가.

지연 - 죄송합니다.

종혁 - 됐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나가 좀.

너는 앞으로 공연에서 빠질 거니까 더 이상 이 무대에 서지 마.

무대에 설 자격도 없으니까.

지윤과 지연 표정이 전부 굳어진다

지연 순간 서러움의 눈물이 몰려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얼굴이 시뻘개 지며 뚝뚝 눈물을 흘리는 지연.

지연 -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되냐! 내가 너 너랑 안 잤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내가 너 같은 새끼 하고 자야 되는데.

그깟 주인공 시켜준다고 그러고 한번 자자고 그러면 내가 잘 줄 알았냐.

망상은 너 혼자해. 그리고 니가 나 쳐다 볼때마다 나한테 손떨때마다 얼마나 소름끼치고 더러웠는줄 알아?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할거야. 경찰에 신고해서 니 인생도 망칠거야.

알겠어? 이 시발 개새끼야

라고 소리를 뱉 지르고 지연 소극장 문 쪽으로 걸어간다.

종혁 얼굴이 시뻘개 진다.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종혁.

종혁 - 뭐, 시발 개새끼, 경찰해 신고해. 야? 너 뭐라 그랬어!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지연이 뒤돌아 종혁을 본다.

지연 -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더러운 새끼.

지연 극장 문을 박차고 나간다.

9. 소극장 앞/ 실외 / 낮

지연이 계단을 걸어올라간다.
지연이 어쩔줄 몰라하고 분노하고 있다.
그래도 서러움이 밀려오는지 억지로 눈물을 참으려 하지만 닭 똥 같은 눈물을 계속 흘리는
지연. 옆으로 지윤이 다가온다.
지윤이 지연을 안아준다.

지연 - 언니 주인공 하는거 저새끼 하고 자서 주인공 된 거예요?

지윤 - 어?

지연 - 언니.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러워요.
왜 이렇게 우리 여배우들은 연기하려면 더러운 일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왜 배역을 얻으려면 자고 그래야 되는거예요?

지윤 - 미안해. 선배가 되가지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정말 미안해. 더러운일 겪게 해서.

지연 - 저는 더 이상 연극 안할래요?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지윤 - 그래. 지연아.

지연이 길을 걸어간다.
지윤은 극장안으로 들어간다.

10. 극장안 / 낮 / 실내

극장안 종혁이 앉아있고 지윤이 들어온다.
종혁이 일어난다.

지연이 종혁 곁으로 간다.

지연이 종혁 뺨을 딱하고 때린다.

종혁 - 진짜 경찰에 신고한데.

지윤 - 그래.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종혁 - 내가 뭘 어쩔다고.

지윤 - 왜 매번 여배우들을 괴롭히는 건데. 왜 싫다는 애한테 자자고 그런건데.

종혁 - 아니 뭐 그게 잘못된거야. 주연시켜주면 한번 자주는건 관습이잖아.

지윤 - 미친새끼. 넌 감옥 가야돼. 감옥 가서 정신을 차려야 돼.

종혁 - 아! 그 시발런 진짜 신고하면 어떡하지. 누나가 잘 좀 설득해봐

지윤 - 됐어. 너같은게 무슨 연극이야. 이연극 때려쳐.

지윤이 일어나서 무대 뒤 분장실로 간다.

종혁은 멍하니 앉아있다.

11. 월미도 바다 근처 길 / 낮 / 실외

지연 바다를 보며 길을 걸어간다.

바람에 지연의 머리 곁이 휘날린다.

12 바다 앞 돌 계산 / 낮 / 실외

지연이 바다를 보고 있다.

남자 - 박지연 배우님이시죠?

지연 - 네 맞습니다.

남자 - 저희는 글로리데이란 영화사인데요. 예전에 프로필 돌리신 거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감독님께서 지연 배우님과 미팅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혹시 오디션 보러 오실 수 있으실까요?

지연 - 죄송합니다. 더 이상 저 연기 안해서요.

남자 - 아이고. 감독님께서 꼭 뵙고 싶어하시는데 한번 뵙 수 없을까요?

지연 - 죄송합니다.

지연이 핸드폰을 끄는다.

핸드폰을 보는 지연.

지연 다시 전화를 건다.

지연 - 저 죄송한데 그 오디션 보겠습니다. 봐도 될까요?

남자 - 물론이죠. 문자로 제가 시간하고 장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있는 연기 하나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지연 - 네 알겠습니다.

13. 오디션장 / 낮 / 실외

오디션장 한쪽 지연이 독백을 하고 있다.

맞은편에는 감독과 조감독이 앉아있다.

지연- 무대 위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난 불안해.
사람들의 냉정한 눈초리는 마치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군.
낯아빠졌어. 지루해"라고 떠들고들 있는 것 같아.
사람들 앞에만 서면 난 나약해지고 무방비한 상태가 되고 말아.
그들을 사로잡을 수도 없고 흥분시킬 수도 없어.
난 공포와 희열의 짜릿함을 맛보고 싶어. 그들 앞에서 말이야.
불꽃처럼 튀기는 대사 칼날처럼 예리한 말들, 햇불처럼 타오르는 말들,
가슴을 짝 채울 수 있는 말들을 그들에게 내뱉고 싶어.
아낌없이, 전율스러우리만치.
그럼 그들은 내 말에서 빛을 받겠지.
그럼 난 그들을 멈춰 세울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말을 던져 주겠어.
꽃처럼 아름다운 말들을.
희망과 환희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말들을.
그러면 그들은 흐느끼겠지. 나도 흐느낄 거야.
멋있는 눈물들을 흘리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꽃으로 날 파문을 거야.
자기들 어깨 위에 날 올려놓고 환호성을 칠거야.
그 순간. 그들 위에서 흔들거릴 그 순간.
내 삶은 거기 있는 거야.
그 한 순간에 내 모든 삶이.
그 한 순간에.

감독 - 좋습니다. 좋아요. 연기도 맘에 들고요. 이번작품에 지연씨를 캐스팅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너무 역할이 잘 맞아요.

지연 - 어떤 역할인데요.

감독 - 큰 역할은 아니고 작은역할 입니다. 그래도 대사도 있고 중요한 역할인데 지연씨하고 이미지가 참 잘 맞네요.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지연 - 네.작은역할이라도 소중히 생각하고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독 - 고마워요. 지연씨.

지연 - 캐스팅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감독님.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든시기인데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 - 뭘요. 제가 고맙죠. 출연해주셔서.

지연이 꾸벅 인사를 한다.
오디션장을 나간다.

14. 운전석 / 낮 / 실외

감독이 운전을 하고 있다.

15. 공원 / 낮 / 실외

공원에 나란히 감독과 지연이 앉아있다.

지연 - 감독님께서 왜 저희동네까지 오신건가요?

감독 - 지연씨 보고 싶어서 왔지.

다름이 아니고 지연씨 우리 영화에 큰 역할이 하나 생겼어.
기존에 있던 배우가 출연료 문제 때문에 하차했어.

지연 - 네.

감독 - 나 그 역할에 지연씨를 캐스팅 하고 싶거든.

지연 - 예?

감독 - 지연씨 주연 한 번 해볼래?

지연 - 저야 감사하죠. 네 하겠습니다.

감독 - 근데 조건이 있어?

지연 - 네?

감독 - 이렇게 큰 역할을 그냥 주긴 아깝잖아. 나 지연씨 처음 프로필 사진 봤을 때부터
설렘이었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 지연씨하고 자고 싶어.
나랑 자면 주연 역할 줄게. 한번만 자자.

지연이 일어난다.

일어나자 감독도 일어난다.

지연 -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니들 장난감이나. 자고 싶으면 자고 벗어나면 벗어나
그런 창녀냐? 나 배우야.
시발 진짜 좆갈네.
야 니딴게 무슨 감독이야. 얼른 꺼져, 얼른 꺼지라고 내눈앞에서 꺼지라고.

지연이 침을 딱 뱉는다.

감독 - 왜그래. 아니 왜그러는 건데.

지연 - 꺼져. 꺼지라고.

감독 - 지연씨 미안해. 아니 죄송합니다.

지연 - 성희롱으로 신고하기 전에 얼른꺼져.

감독이 돌아서 길을 걸어간다.

지연이 터벅하고 의자에 앉는다.

말이 없는 지연.

지연 일어나서 길을 걸어간다.

16. 바다 / 낮 / 실외

지연이 바닷가 길을 걸어간다.

17. 바닷가길 / 낮 / 실외

지연 바닷가 돌 앞에 앉아있다.
반지를 보는 지연.

금은방 가게 / 실내 / 낮 / (회상씬)

키는 160 몸무게는 55 정도에 눈매는 찢어져서 날카롭고 웃으면 입 몸이 흰히 보이는
개성 있게 생긴 여배우 지연(30)이 왼손 4번째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며 웃고 있다.
인자하게 생긴 금은방 주인이 동형과 마주보고 있다.

지연 - 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좋은 배우가 되기 전까지는 이 반지
절대로 빼지 않을 거 예요.

맞은편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주인 -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꼭 꿈을 이루셔야 됩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화면 암전되면 타이틀 “ 기회는 있다 ” 이 뜬다.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바다에 던지는 지연.

지연 - 내가 이제 그만할게. 더 이상은 연기 하기가 싫다.

지연 말없이 바다를 본다.